



1회용품 없는 세상만들기

안현주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부장

1. 1회용품 역사와 현황

1908년 미국의 American Water Supply of New England라는 회사가 1센트짜리 동전을 넣으면 물 한 컵이 나오는 자판기를 동부 대도시 곳곳에 설치하면서 1회용 컵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회용품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 되는데 물파는 자판기는 곧이어 청량음료를 파는 것으로 발전되었고 이러한 1회용품의 대량소비는 1차 대전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지구자원의 고갈이나 환경파괴를 염려하지 않았을 시점이었다.

그러나 위생과 편리함을 보장하던 종이컵은 방부처리와 기타 화학 물질로 오히려 심각한 공해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1회용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목재가 소모되면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등의 문제도 야기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과대포장 제품이나 종이컵, 비닐봉투, 스티로폼 접시, 도시락, 나무젓가락, 광고용 전단지 등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0% 정도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였다.

1992년 정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규제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 한정되고, 규제의 강제력도 약하여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상태라 시민단체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민의식조사를 근거로 규제강화를 요구하였고, 정부는 마침내 1999년 2월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규제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그 결과 대형유통센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광고선전물 등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한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2.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시민단체 중 쓰시협(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은 쓰시협하면 1회용품을 떠올



릴 정도로 1997년 창립 초기부터 아주 끈질기고 세밀하게 1회용품 사용문제에 매달렸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감량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깊게 배어버린 1회용품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또한 1회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합성수지로 인해 매립이 된 이후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소각시에도 유해물질을 일으키며, 환경호르몬 검출 등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문제로 까지 커지게 되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이 시민들에게 생활습관화 되므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원활용과 환경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심각하게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쓰시협은 포장 및 일회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광주 지역의 빅마트라는 한 유통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던 쇼핑봉투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IMF 경제위기 시기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에 보증금을 부과하여 구매하므로써 시민들이 1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모아진 보증금으로는 결식아동·무의탁노인 돕기, 실업극복기금 등의 복지 및 환경기금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관련 업체 및 기관을 설득해 나가고 시민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에서의 1회용 봉투 및 포장쓰레기 발생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각 업체의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형유통업체와 간담회,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시민공청회, 토

론회 등을 개최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사회제도로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1회용봉투·쇼핑백 사용량이 종전보다 62.6% 감소하였고 한동안 사라졌던 장바구니와 자유포장대(빈 박스나 끈을 이용한 포장)의 사용이 확산되게 되었다.

또한 법개정 이후에도 쓰시협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유통업체들에 대한 감시모니터링을 통하여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1회용 봉투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였다.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전용계산대 마련, 장바구니 수만큼 물건값을 할인·적용하는 장바구니 고객 할인제도, 장바구니 대여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보증금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사용을 감소 효과가 떨어지므로 인해 봉투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기하여 2002년 6월부터 대형매장부터 50원으로 인상되도록 하였고 장바구니를 사용할 경우 물건값에서 50원을 인해주도록 하였다.

시민단체 중에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대형매장에서의 소포장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야채는 투명망, 물기있는 재료는 방수망 주머니를 이용하여 장을 보게 하므로써 원칙적으로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

태 및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아파트 내에 분리수거함을 만들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여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였고 인근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비닐봉투 재사용 체계를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이후에도 90% 회수·재활용이라는 예외 적용으로 여전히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1차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의 회수와 재활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하였으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일 엄청나게 발생하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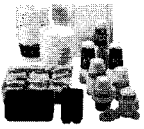
캠페인, 간담회, 실태조사를 꾸준히 해 온 결과 2001년도에 마침내 서울 도심 한 복판에 국내 최대의 패스트푸드점 업체인 L사가 운영하는 종로구 관철동 지점을 『1회용품 안쓰는 패스트푸드 1호점』으로 개점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현재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었지만 이 곳의 경우 1회용 종이컵만 연간 110,000개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법 개정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아웃 중 면적이 넓은 매장의 경우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자발적협약이 이루어졌고 2003년 7월부터는 45평 이상의 매장은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인체 및 환경에 해로운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 하기 위해 캠페인 홍보활동, 기업

[표 1]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가능한 경우	비고
모든 음식점 (10평 이상)	· 컵, 접시, 용기 · 나무젓가락 · 수저, 포크, 나이프 · 나무이쑤시게 · 비닐식탁보	·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시 · 자판기로 판매시 · 나무이쑤시게(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 비치할때만) · 90%이상 회수·재활용시에도 45평이하	
10평이상 매장	· 1회용 봉투 · 쇼핑백	· 유상판매시 · 생산·정육·채소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은 합성수지 봉투	10평미만은 지방 조례로 정함
식품제조공업, 즉석판매제조공업 도시락 제조업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 장기유통용 밀봉포장 도시락 · 분해성 합성수지 도시락	도시락용기도 사용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신규 규제	
목욕탕, 숙박업소	· 면도기, 칫솔·치약, 삼푸·린스	· 관광호텔에서 투숙객이 요청시 (별도 장소에 비치)	
위반시 제재절차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증진: 1차 이행명령(3개월) → 2차 과태료(300만원 이하)		



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종이와 같이 재활용이 용이한 용기로 대체하도록 하여 그 결과 종이용기 컵라면이 늘어나고 되었으며, 전국 대형유통업체가 식품포장재로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1회용 합성수지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재활용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여 1회용 합성수지사용이 규제되면서 왕겨로 된 1회용 용기, 종이용기 등이 사용되도록 하였고,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자판기 등 친환경적인 대체용품들이 출시되거나 개발되도록 하여 대체산업 육성 및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일회용문화가 다회용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 및 친환경적 생활양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2002년 환경월드컵을 위해 본 경기이전에 경기장의 쓰레기 관리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경기장 쓰레기의 총발생량이 감소되었고, 응원도구 무상배포금지,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경기장 문화 정착, 경기장내 흡연금지, 클린업타임운영 등으로 쓰레기없는 월드컵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운동경기장에서 1회용 응원도구의 무상배포가 금지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3. 규제강화 이후의 과제

이와 같이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문제제기로 관련법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2년 12월 [표 1]과 같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개정되었다.

종전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적용대상이 다르고 예외규정이 많아서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는데 10평 미만도 조별로 규정하고 90%회수 재활용 시에도 45평 이상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업체만 득을 본다든 견해가 아직도 팽배하다. 또한 업체는 이로 인한 시민들의 항의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행정당국은 강화된 법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련업체를 단속해야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체는 봉투판매로 인한 이익금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97년부터 자발적으로 쇼핑봉투보증금제를 실시했던 광주의 빅마트의 경우 이익금을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돕기, 무료 급식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합제작지원 등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매장 안 여기저기에 게시하여 공개하므로써 시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고 초기에 하루 1만장 정도였던 봉투 사용량이 70개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따라서 봉투보증금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사회환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 스스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장비구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장비구리 고객에 대해 장비구리 고객 전용 계산대 마련, 1회용봉투 가격표시제, 재사

용 종량제 봉투 사용, 계산대에서 장바구니 상설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형평성 문제 등 규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평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도 조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후에는 위반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정기적으로 벌이므로써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더욱 늘어난 규제대상을 점검하기가 어려우므로 시민단체와의 공조, 시민감시단 위촉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가지려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외국 사례를 보면 행사시 설거지 차량대여, 다회용기 대여, 다회용 기저귀 사용 가정에 대한 장려금 지급, 1회용품 가격보다 장바구니가격이 더 싼 것 등 다양한 유인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전반적인 시스템이 1회용품 보다는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 진다면 시민들의 생활양식도 변화할 것이며 쓰레기가 줄고 자원을 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는 더 세밀하고 질기게 이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벌어나갈 것이다. ☞

물 막힘 완전 해결!!

물(roll)막힘, 오염, 기타 세척에 대해 애로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바로 click 하십시오.



세척서비스

- Biojet(완벽한 물리적 세척)
- 장착상태로 세척
- 탈착하여 세척

세정액

- Biojet(화학적 세척)
인체에 무해한 무용제 타인
- 수성임크용, 유성임크용, UV임크용

물 막힘 테스트

오염정도를 확인가능
Ravol (셀 용적측정 장비)

보조부품

- 브러시 (효과적인 세척)
- 스테인레스 솔 : 세라믹용
- 구리 솔 : 크롬용
휴대용 현미경(100배)

예문의사

전화 : 031-424-4505 팩스 : 031-423-8169

Home page : www.yerim.com e-mail : kichoi@yerim.com